

# 출마 배경·경쟁력·공과 ‘송곳질문’에 예비후보들 ‘진담’

##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면접 무슨 얘기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심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경선 경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심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49명이 지역별로 순서를 정해 한 명씩 10분여간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은 오후 4시 이후 실시됐다. ‘가나다’ 순으로 강기정·민형배·양향자·윤장현·이병훈·이용섭·최영호(이상 광주시장) 예비후보, 김영록·신정훈·장만채(이상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순서대로 면접에 임했다.

강기정 후보는 “심사위원들이 언제 어떻게 단일화를 하는지, 내세우는 시민공동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며 “단일화 후 컷오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섭 후보의 탈당 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부담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후보는 “공과 과를 묻는 질문에 어려움 속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을 공으로 얘기했고 과는 ‘초기 권위주의적 행정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공무원 사이에 협치·배려·나눔 문화가 부족해 어려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합당해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나갔고 그 이후 당이 어려울 때도 당을 지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용섭 후보는 “저를 1분 자기 소개하는 부분에서 ‘일지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광주시민의 요구가 빚발쳤고 그래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광주시민에게 결코 보은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는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강기정**  
단일화 후 컷오프 해달라  
**윤장현**  
하계U대회 성공 개최 ‘공’  
**이용섭**  
낮은 자세로 안고 가겠다

**김영록**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 받아  
**신정훈**  
대선 공약 설계한 내가 책임자  
**장만채**  
전남 장점 살려 주도적 발전

누군가’라는 질문을 받고 ‘모두 함께 가야 할 자산이다. 낮은 자세로 안고 가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는 “출마 배경을 묻기에 ‘이 개호 의원이 늦게 불출마를 결정해서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고 나왔다’고, ‘경선 준비에 쫓았는데 대처는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도와줘서 짧은 기간에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에 과반을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각 답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후보는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근거지에서 국정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도정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농촌 현장과 지방과 중앙정부 모두를 경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전남의 대선공약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오른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상호 의원이 2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광역단체장 면접에서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장만채 후보는 “출마 배경에 대해 ‘그동안 전남은 중앙의 돈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전남의 장점을 살려서 전남이 주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자 장점이 뭐냐고 묻기에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답하고 ‘산업화 시대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중요한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부로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정제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5), 도덕성(15), 당선가능성(30), 면접(15) 등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면접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4~5일에 단수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16일에는 단수·경선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2일까지는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광주시장 경선 단일화 오늘 발표

###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 여론조사 착수

### 지역 시민단체·원로 등 숙의배심원제 통해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이르면 3일 단일후보를 결정한다. 또 단일후보를 통해 진행하게 될 시민공동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안도 조만간 제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결선투표제 도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결선투표제 도입

을 발표하면서 이들 후보군의 단일화 파급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윤장현 시장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2일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를 중심으로 한 숙의배심원제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한다.

이 여론조사는 공정성을 위해 2곳의 조사기관이 각각 지역 유권자 1000명씩을 대상으로 이날 시작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와 숙의배심원제를 통해 이르면 3일 최종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4일께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 세 후보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갖은 선언식에서 ▲자치분권 시대 광주지방정부의 역동성을 살려나다 ▲광주성장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에 헌신한다 ▲5·18정신 구현에 앞장선다는 3가지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의 변화는 시장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이 함께 하는 시민공동정부를 구성해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큰 틀에서 단일화에 동의하지만 방식과 절차에 다른 후보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향자·이병훈 두 후보는 단일화

추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다.

한편, 단일화를 추진중인 강기정·민형배 예비후보는 이날 중앙당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일제히 도입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강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의 경우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후보들의 정책에서부터 과거 행정까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예비후보도 “결선투표제가 주는 세 가지 ‘민주적 이익’으로 ▲본선 후보의 폭넓은 대표성 확보 ▲사표(死票) 최소화로 주권자 참여 확대 ▲도전의 문 넓혀 활발한 경쟁환경 조성 등이 있다”면서 “결선투표 장점은 ‘경쟁력 있는 본선 후보 선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안철수, 박원순 앞에서 출마 선언?

### 서울광장 출정식 검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 장소로 서울광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이 근무하는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 서울시장 선거를 박 시장과 ‘1대1’ 대결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해석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2일 “서울시청과 가까운 곳에서 선언함으로써 안 위원장이 서울을 이끌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다른 장소도 물색 중이지만 일단 유력한 후보지로 놓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도 박 시장이 후보에 나서

도록 했다.

이 때문에 7년 만에 벌어지는 두 사람의 대결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당에서 벌써 여러 명이 후보직을 고사한 데다 현재 급부상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극우 이미지가 강해져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오는 4일 출마선언을 마치고, 이르면 주말부터는 안국역 부근에 마련한 선거 캠프를 공식 가동할 계획이다.

이때부터 각 의원실로부터 보좌진을 파견받아 공약과 유세일정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미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서울 맞춤형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